休 Mandala

‘마음쉼터를 가다’

⑥ 홍천 행복공장 무문관

無門關

대자유 위한 내 안의 감옥



‘철커덕’ 걸어 잠근 문처럼 온갖 바깥 세상으로 열린 마음 또한 일순간 정리가 됐다. 좁은 1.5평의 공간, 하얀 벽 사이로 뚫린 작은 창문 만이 세상과 통하는 길이다. 항상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도, 하루종일 빠져 있던 인터넷도 없다. 심지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조차 없다. 간간히 들리는 새들의 지저귐과 찌르레기 소리만이 동무가 되는 곳이 바로 무문관이었다.

바깥의 문을 걸어 잠그고 마음의 문을 여는 ‘무문관’ (無門關). 무문관에 대한 세간의 관심은 뜨겁다.

선방 수좌 스님들이 용맹정진하는 수행처란 기존의 의미에서 최근에는 재가자들도 동참 가능한 개인수행처로 의미를 확장하고 있다. 제방 선원의 전통적인 무문관이 있지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무문관, 혹은 개인수행처가 다양하게 생겨나고 있다. 매일 매일 쳇바퀴처럼 일상에 매진하던 대중들에게 무문관은 수행을 하는 곳을 넘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을 통해 새롭게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는 곳으로 각광 받고 있는 것이다.

대중들을 위한 무문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 중 가장 유명한 곳이 바로 사단법인 행복공장이 운영하는 행복공장 홍천수련원이다. 행복공장 홍천수련원은 ‘내 안의 감옥’ 이란 다른 이름을 갖고 있다.

행복공장 홍천수련원은 약 330여 평의 부지 위에 관리동과 강당동, 체험동의 3개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체험동에는 32개 독방을 갖추고 있다. 일단 독방에 들어가면 밖에서 문이 잠긴다. 바깥과 연결된 유일한 곳은 숲이 보이는 창문과 작은 음식 반입구가 전부. 프로그램은 가장 대표적인 ‘독방24시간’ 을 비롯해 ‘금강스님의 무문관’ , ‘프리존 스테이’ , ‘노지향의 유쾌한 감옥’ , ‘황 신부의 내안의 감옥’ 등 다양하다. 48시간과 24시간 7박8일과 4박 5일 등 다양하지만 대부분이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교도소와 흡사한 건물 구조

행복공장 홍천수련원을 찾은 첫 인상은 마치 연수원 건물 같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현대적인 건물이 주는 인상이 뇌리에 남아 있던 시간은 잠시 뿐이었다. 이른바 수감복인 푸른색 수행복을 입고 수감번호를 부여받고 운영실장의 뒤를 따라 체험동으로 향하자 조금은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왔다.

철문으로 된 건물입구부터 가운데로 난 계단과 마주보게 된 각 방의 구조 등 체험동은 영락없는 교도소였다. 각방의 문에는 작은 배식구가 나 있었고 문고리 마다 자물쇠가 보였다.

교도소와 같은 구조여서 일까. 건물 내부는 적막했다. 인기척이 없었으나 모두 각자의 방에서 수행 중이란 말을 들었다.

기자에게 배정된 곳은 207호였다. 행복공장의 내부시설은 단촐했다. 방문 아래에는 밥이 들어오는 배식구가 있고, 문 옆에는 커튼으로 가려진 작은 화장실이 있다. 그 뒤로는 요가매트와 거울이 없는 세면대가 있으며, 작은 협탁 위에 차를 마실 수 있는 포트와 다기, 그리고 글을 쓸 수 있는 메모장과 펜이 전부였다.

B2면에 계속



INSIDE

B3 조준호의 미얀마 수행처 이야기 — 빠옥 총림에서 생활 〈6〉
B4 책세상 — 전순환 역, 〈팔천송반야경〉
B5 문화 — 입체낭독극 ‘석가탑’
B6 학술 — 동국대 2019 불교박사학위 논문